

# 새정치, '국정원 해킹' 원세훈·나나테크 고발

〈전 국정원장〉

스파이웨어 구입 통신법 위반 혐의...이병호 현 원장은 제의

안철수 "수사하면 SKT 회선 민간인 사찰 여부 확인 가능"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증명한 나나테크 등을 2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핵심 고발 내용은 나나테크가 스파이웨어를 수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가를 받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전달 유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등이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의혹의 진실 규명을 위해 30개 자료를 오늘 오후 2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고 국정원은 무응답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해킹을 시도한 IP 중 지금까지 드러난 SKT 3개 회선의 가입자를 확인하면 내국인 민간인 대상의 사찰인지 확인이 가능하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해킹 대상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정보위로 들어와서 문제를 제기하라는 여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도 "현재 핵심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청문회로 진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인 송호창 의원도 "이번 1차 고발에 이어 추가 사안이 있을 때마다 2, 3차 고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숨진 국정원 직원에 대한 내부조사에서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국정원은 탐구하고 있다"며 "목록

을 버린 원인이 무엇인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병호 현 국정원장에 대해 해킹 프로그램 구입 및 운영과 관련해 크게 관련이 없다고 판단, 이날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새정치연합의 총공세에 새누리당은 "무책임 정치의 극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신인의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진상규명에 힘을 모아야 할 야당이 오히려

서정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의원은 국가정보 문제를 부풀리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남북이 대치된 나라가 우리 하나인데, 좋아할 사람이 북한 밖에 더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새정치연합과 안 의원의 국정원 관계자 검찰 고발에 대해 "국가안보와 안위를 생각한다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고 무책임한 처사"라며 "제1야당으로서 자중해달라"고 말했다.

신인의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진상규명에 힘을 모아야 할 야당이 오히려

불신을 조장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안 의원이 보안전문가라면 국가정보기관을 무력화시키는 데 앞장설 게 아니라 북한 사이버테러 대비에 앞장서야 마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출신의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방송에 나와 야당의 국정원장 등에 대한 검찰 고발에 대해 "명백한 잘못이 있어야 검찰이 조사를 하지 그냥 의혹만 갖고 갖고 검찰이 조사하면 누가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왼쪽)과 이종걸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킹 의혹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심상정 "퇴행적 지역정당, 호남민이 심판할 것"

정의당 대표 취임 후 첫 지역 행보로 광주 찾아

기득권 타파 등 '호남정치 혁신' 3대 원칙 제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3일 이른바 '호남발 신당'에 대해 "새로운 당의 출현이나 성공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표 취임 이후 첫 지방 행보로 광주를 찾은 심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공천이나 혁신과정에서 밀려난 분들이 (선거때마다) 살아남기 위해 이합집산을 하는데, 이러한 모습을 국민이 많이 봤고 그런 부분이 정치 불신의 한 모습이다"며 이같이 밝혔

다.

그는 또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 새로운 당의 출현이나 성공이 쉽지 않았다"면서 "퇴행적인 지역주의에 기대는 정당은 호남 지역민들이 단호히 심판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 3분의 1의 지지를 받았는데도 신당 창당 시도가 실패했다"면서 "신당의 전망에 대해 지금 묻는다면 대단히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이어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원하는 혁신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시하고 원칙에 부합하는 정당이라면 (연대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호남정치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기득권 타파와 주도세력 교체, 민생살리기 등 3대 원칙을 들었다.

그는 우선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올인'해야 하며 이에 앞장서지 않

으면 정치혁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권력을 독점에 온 세력을 유능한 정치신인으로 교체하고 민생 실천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전정배 의원과의 연대 등에 대해 심 대표는 "천 의원을 아직 만나지 못했으며 구상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다"며 "광주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3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나 정치세력이라면 편을 같이 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회견에 앞서 국립 5·18 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오후에는 전국급속노조 캐리어지회를 방문해 격려하고 환담한 데 이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금도 정치개혁 골든타임'을 주제로 강연하며 정치혁신을 위한 방안 등을 역설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대기업 한식 뷔페 사업 진입 억제'

박지원 의원, 상생법 개정안 발의

GS쇼핑몰, 무안 남악 입점 관련... "지역 상권 말살 우려"

무안 남악지역의 GS 리테일 복합 쇼핑몰 입점과 관련, 목포 지역 상권 황폐화에 대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이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식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23일 대기업의 한식 뷔페 사업 진입 등을 억제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2013년 한식뷔페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음에도 대기업 한식뷔페 매장은 계속 늘고 있다"면서 "이는 대기업 분사·계열사 소유 건물에 대한 입점 제한이 없기 때문"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동반위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이 적합업종 예외조항 등에 대한 개선요구를 할 경우, 대기업이 성실히 협의에 응하도록 했으며 합의가 도출되면 권고 기간 만료 전이라도 개선책을 적용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점포가 신설·증설될 경우, 지



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다 폭넓게 심사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가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할 때, 해당 지역 뿐 아니라 인접 지자체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산업자원부장관과 중소기업청장 등 정부 측에 도시 외곽에 대형 마트 들어서면 지방 소도시의 상권이 폐허가 된다는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해 왔다.

지난 6월 열린 새정치연합 워크숍에서도 대기업 한식뷔페, 아울렛 입점 등으로 지역 상권이 말살 위기에 처해있다며 중소기업들을 위해 정책위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당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여야, 추경예산안 잠정 합의

'법인세' 문구 넣기로...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여야는 23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부대의견으로 '법인세' 문구를 넣기로 하는 등 추경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협상을 벌인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부대표는 "추경안은 잠정 합의를 의했다고 보면 된다"며 "오늘 24일 통과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오후에) 원내대표끼리의 합의가 이

뤄져야 한다"면서도 조 수석부대표의 발언을 묵인했다.

여야는 추경안을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면서 세입경정 추경이 발생한 것과 관련, 부대의견에 정부의 세수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법인세도 언급하기로 했다. 다만, 어떤 표현으로 담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의 잠정 합의를 토대로 새누리당 원우철·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만나 최종 담판을 시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與, 내년 총선 겨냥 '사회적기업 거래소' 설립 검토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한국거래소 산하에 사회적기업의 주식을 일괄거래처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기업 거래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자생력이 약한 국내 사회적기업이 정부 보조금 없이도 자립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내년 총선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등 진보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 등에 민간에서 자금이 유입되게 하고 성과가 나오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으로 안다"며 "단순한 일반 기부가 아니라 '사회적 투자'의 개념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움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광주 5회연속 선정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신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신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NAVER 주소(D)대신프리모

대신프리모 남가발